시집 [미상]

Made with Gamma

사계

햇살 아래 놀던 벚꽃 아래에서,

바람과 꽃잎의 춤을 바라보았네.

하늘을 향해 뻗은 손끝에는,

봄의 노래가 속삭이는 듯했지.

여름날, 시냇가에 발을 담그며

소곤대는 물의 은밀한 이야기에 귀 기울였네.

우리의 웃음소리가 흐르는 물결에 스며들어,

순간을 영원으로 만들었지.

가을 들판, 황금빛으로 물든 순간,

흩날리는 낙엽 사이로 달리며

마음껏 자유를 만끽했네.

저무는 해 아래, 우리는 영원히 어린아이였지.

겨울이 오면, 첫눈이 내리는 밤,

눈사람을 만들며 별빛 아래 소원을 빌었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따뜻했지.

Made with Gamma

빛의 기원

밀밭 너머, 해가 질 무렵에,

바다의 소리가 조용히 울려퍼지네.

그 소리 속에 담긴, 깊은 고요 속으로

한 아이가 별빛을 따라 걸어가네.

그 아이의 발걸음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꽃이 피어나고,

그 꽃들 사이로, 영원의 속삭임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울려퍼지네.

"여기, 너의 시작이 있고,

너의 근원이 깊게 내려앉은 곳,

흙의 품에서 너는 태어났으며,

연안의 힘으로 너는 자라났다."

아이는 달린다, 끝없는 초원을 지나,

각자의 빛을 품은 꽃들 속을,

그리고 마침내,

흙과 연안이 만나는 곳에서 멈추네.

그곳에서 아이는 해안을 바라보며,

흙의 온기를 느끼네.

별빛 아래, 초원과 해안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아이는 깨닫네.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임을.

Made with Gamma

꽃 위에 핀 거리

해바라기의 눈물 위에 세워진 거리에서,

번영의 그림자 아래 나는 서 있네.

흰 꽃이 지고, 깃발은 무너져 내린

그곳에서, 이국의 빛은 화려하게 빛나네.

이 땅의 기쁨, 그 모든 웃음 뒤에

숨 쉬는 고통이, 울부짖고 있네.

꽃 잎은 떨어져 썩어지고,

뿌리에 담긴 슬픔을 숨기고 있네.

불꽃처럼 타오르는 이 거리,

그 빛은 어디서 왔는가 묻지 않네.

순결을 밟고 일어선 이 화려함 속에서,

나는 두 세계의 괴리를 느끼며 걷네.

Made with Gamma

만남

벚꽃 아래서 너를 처음 본 순간,

봄바람처럼 너는 내 마음을 스쳤네.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너의 눈빛이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네.

밤하늘 윤슬처럼 반짝이는 순간,

너와의 대화는 별빛 아래 살며시 피어났지.

그 조용한 교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섰네.

나비의 경쾌한 춤처럼 너의 웃음이,

내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었네.

너는 잠시 머물다 가는 계절 같았지만,

네가 남긴 흔적은 영원히 내 마음에 남아 있네.

Made with Gamma

조용한 노래

도쿄의 긴 밤, 벚꽃 아래 흐르는 소리를

낯선 땅의 언어로 채워가며 꿈을 나누었네.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순간 속에서

봄날처럼 가벼워, 달빛처럼 부드러운 울림이 되어.

하루카, 네 눈빛에 비친 내 조국의 그리움을

벚꽃잎에 담아 조용히 노래했더니,

그리움을 바람개비에 실어 보내며

이방인의 쓸쓸함을 음표에 숨기었네.

이 노래가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리.

조용한 노래는 마음속에 영원히 피어나

사랑과 이별, 희망의 메아리로

너와 나, 우리의 걸음을 비추리니.

Made with Gamma

바람

험난한 들판을 가르는 바람에,

우리 이야기의 속삭임을 빌려보내,

희망이란 깃발을 당당히 휘날리며

밤의 불빛 아래로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네.

해마다 돌아오는 꽃길에서,

가슴 깊은 곳의 노래를 용기 있게 부르리니,

군화에 짓밟혀도 피어나는 흰 꽃이여,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자국이여.

Made with Gamma

약속

달빛 아래, 그림자는 물러가고

빛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실루엣을 헤맸네.

넓은 대지 위, 마음은 끝없는 바다와 같아

세월의 지혜와 젊음의 불꽃, 순수한 꿈이여.

불길은 길잡이 별처럼 길을 비춰

잊혀진 웃음의 기억을 소환해주오.

가슴 품은 벚꽃, 나비의 춤 따라

소망은 영원의 조용히 스며들고,

새로운 시작의 노래를 부르리.

등불에 일렁이는 비극적 웃음과 함께,

외침은 대지를 울리며 멀리 퍼져나가,

알 수 없는 시간에 새겨질 환희를 위해

사랑과 희망의 노래를 온 세상에 퍼뜨리리.

Made with Gamma

희미한 빛 속에서

병상에 누워 창밖을 바라본다,

희미한 빛이 조용히 방 안으로 스며든다.

작은 공간을 부드럽게 밝히며,

시간은 여기서 멈춘 듯, 고요하고 정적이다.

쓴 약과 함께 녹아버린 세계로

꿈속의 봄, 벚꽃이 흩날리는 곳으로 미끄러진다.

하루카와의 잊혀진 순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달콤한 슬픔을 남긴다.

밤이면 나는 꿈을 꾼다,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아름다운 순간을.

약속된 새벽이 오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노인의 마른 기침만이 가득하다.

방 한 켠에는 놓여진 미완으로 그칠 삶,

흩뿌려진 붉은 재들 만이 쌓여가고

발굴되지 못할 층으로 갇혀갈 지라도

청년의 마음은 단단하게 빛을 만들어주오.

Made with Gamma

마지막 서정

잊혀질 이름 아래서,

숨결은 바람에 조용히 섞인다.

마지막 노을 속에 서서,

빛과 어둠 사이를 걸어 간다.

바다의 파도가 모래알을 쓰다듬듯,

바람개비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향해 돌아가네.

이젠 벚꽃이 지는 계절에,

나비는 빛을 따라 하늘을 날으리.

침묵하는 밤의 창가에서,

아이는 등불의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

미약한 영원의 불꽃은,

화상으로 끝나지 않는 서사가 되리라.

Made with Gamma